

사회

# 김치축제 전국화 원년으로

## 공모전 350여개 작품 참여 ... 해외서도 관심

### '전국축제' 기를 마련 ... 광주의 맛 산업화도

오는 23일 개막하는 광주김치문화축제는 김치 관련 대규모 전국 공모전을 통해 행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전국화의 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 행사는 광주·전남 김치업체들이 주로 참가해온 팔도김치문화관, 세계웰빙발효식품관 등 마케팅 행사에 세계김치협회를 포함해 전국 김치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시와 광주김치문화축제 추진위(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앞두고 전국 공모전 김치스토리텔링, 김치산업 콘텐츠 아이디어, 국제김치학술심포지엄 논문 공모 등 3대 공모전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치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는 '아주 특별한 김치 이야기'가 대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무려 223개 작품이 공모에 참가했다. 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듯 영국, 미주 등 해외 공모작품과 새터민, 이주민 등의 참여도 높았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김치가 산업화의 가능성을 넘어 김치의 이야기를 상품성 있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김치산업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김치 포장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두 131편의 응모작 가운데 대상작인 오세빈씨 등 5명이 공동제안한 "약보다 김치 Slicer Kimchi~!"는 알약의 캡슐에서 모티프를 따와 김치를 용기에서 꺼내지 않고 바로 김치를 자를 수 있는 용기를 공동 제안한 작품으로, 수출용 포장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축제의 내용 면에서도 이번 행사는 지역을 넘어 전국화의 토대를 마련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진위는 본 행사자인 영주체육관 상설 부스에 세계김치협회 등 김치 관련 단체에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 김치·문화 교류의 장을 조성했다.

세계김치협회는 세계를 무대로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5개 사가 참여해 김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고, 세계김치연구소 홍보관도 마련했다. 김치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들과 맛을 교감하기 위해 세계 웰빙 발효식품관, 양념·향신료의 비밀관, 세계음식문화관, 팔도김치문화관도 조성된다.

이밖에 행사기간 동안 광주김치축제를 홍보하고, 김치마케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라도 목은지콘테스트, 김치퓨전요리 콘테스트, 김치마스터 콘테스트 등 3대 공모전이 진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김치축제가 광주 맛의 산업화는 물론 전국화, 세계화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는 김치문화축제 개막을 10여일 앞둔 12일 송정떡갈비 거리에서 '5미 식객투어' 현판식을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5미 식객투어' 운영

### 광주 120개 식당서 특별 김치 제공

광주김치문화축제 기간인 10월 23일부터 11월1일까지 시내 유명 음식점에서 김치스페셜을 제공하는 '5미(味) 식객투어'가 운영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치문화축제 기간에 송정리 떡갈비와 유동 오리탕, 무등산 보리밥, 한정식 등 120개 식당에서 김치를 특별하게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120개 식당에서는 김치를 평소보다 풍족하게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식당 내부에는 축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종업

원들은 축제기간에 김치문화축제 로고가 찍힌 앞치마를 착용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오전 송정떡갈비 거리에서 '5미 식객투어' 현판식을 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의 다섯 가지 대표적인 음식이 떡갈비와 오리탕, 보리밥, 한정식, 김치인데 김치문화축제기간에 떡갈비와 오리탕, 보리밥, 한정식에다 김치를 풍족하게 드시면서 광주 김치의 진수를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6분 / 해질 18시 00분 / 달출몰 00시 49분 / 달침 14시 54분

**밤부터 비**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10mm.

도시	기온
광주	흐리고 한때 비 13/21℃
목포	흐리고 한때 비 14/20℃
여수	구름 많음 16/22℃
완도	흐리고 한때 비 14/21℃
구례	흐리고 한때 비 9/22℃
해남	흐리고 한때 비 12/21℃
장흥	흐림 11/21℃
고흥	구름 많음 10/23℃
순천	구름 많음 13/22℃
영광	흐리고 한때 비 11/20℃
진도	흐리고 한때 비 11/20℃
전주	흐리고 한때 비 11/21℃
남원	흐리고 한때 비 8/21℃
목성도	흐리고 한때 비 17/19℃

지역별 강수량: 서해 남부 앞바다 0.5~0.5m, 서해 북부 앞바다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0.5~1.0m, 남해 동부 앞바다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1.0~1.5m, 남해 동부 앞바다 1.0~1.0m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3/23	11/22	12/21	12/20	11/22	12/22

**전남대 로스쿨 경쟁률 4.39대1**

지난해 보다 상승

3대1이었다. 서류평가를 거쳐 다음달 3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14일과 21일 면접고사, 12월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남대 관계자는 "사람에 비해 크게 저렴한 수준의 등록금과 학생 절반 이상 장학금 수혜, 공익인원비, 보건의료법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비법학 학생을 위한 예비과정 운영 등이 경쟁률 상승의 비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중·고 통합 첫 '철학 중심' 대안학교

## 광주 지혜학교 내년 개교

**광산구 등임동 80명 모집**

광주에 6년제 중·고교 통합형 대안학교인 지혜학교(교장 김창수)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12일 철학교육 중심의 중·고교 통합과정 대안학교인 사단법인 지혜학교는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중·고 통합과정(6년제) 40명과 고등학교 과정(3년제) 40명 등 모두 80명이다. 1차 서류심사와 수험능력, 사회성 평가, 심층면접 등을 하는 1박2일의 전형캠프(11월14~15일)를 거쳐 선발한다.

학교 부처는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탁 교육하는 학교는 있지만, 철학 등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둔 대안학교의 설립은 광주에선 처음이다.

지혜학교는 철학적 사유 능력 배양, 공동체 지향, 역사,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 등 철학 중심 학교로 운영된다. 통합교육 과정은 기초 2년, 본 과정 3년, 진로준비 과정 1년 등이며 학력 미인정 학교인 만큼 검정고시나 대학진학 준비과정 등도 마련돼 운영된다.

광산구 등임동 옛 폐교를 학교 건물로 확보해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광주·전남 시민·교육 단체와 전·현직 교사 등이 설립에 참여했으며 15명 인원의 교직원을 확보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아람회 사건' 184억원 국가 배상 판결

### 박해전씨 등 '5·18 실상' 알리는 유인물 배포 혐의 억울한 옥살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연루자들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속 부장판사)는 1981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박해전(54세) 등 6명과 유가족 등 총 37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위자료 80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 이자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박씨 등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184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확정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19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자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

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 1년6월~10년 선고를 확정받고 1988년 특별사면됐다. 이들은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리게 됐다.

/연희뉴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노고단 등서 농성**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민중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준비위원회는 12일 지리산 천왕봉과 노고단, 반야봉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고 자연공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노고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늘려 지리산과 설악산 정상까지 케이블카 노선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 산은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험박은 산으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우리 세대는 민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노고단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이, 천왕봉은 산악인 중심으로, 반야봉은 불교연대(준)가 각각 농성을 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우꽃돌침대 매트 고객사는 정기 대 세일**

전지파 제기 두중 사용 / 전지파지킴: 0cm가을 물침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 5개국 특허 획득 및 세계4대명품인 5차례 수출수입

**20% SALE** 10월 9일 - 10월 25일 까지

모범품 DWK10000001, 정기대 세일가 **1,790,000**

모범품 DWK10000002, 정기대 세일가 **1,490,000**

1박 2일 3대 방문판매

시군별: 1. 광주광역시, 2. 전남, 3. 전북, 4. 경남, 5. 경북, 6. 충청, 7. 호남, 8. 강원, 9. 서울, 10. 인천, 11. 경기도, 12. 충청, 13. 호남, 14. 강원, 15. 서울, 16. 인천, 17. 경기도, 18. 충청, 19. 호남, 20. 강원

**동우에네스톤(주) 동우교역** 호남부회전화: 062-314-6864 / 본사상업전화: 02-514-6854 www.eneston.com

정기 대 세일 행사점: 광주 롯데백화점 : 062-221-1762 광주 현대백화점 : 062-510-7853